

# 전남도, '맞춤형 기능성 쌀' 생산 대폭 늘린다

작년 보성에 78ha '하이아미' 재배 고소득

올 나주·구례·강진 등 신규단지 조성키로

전남도가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쌀 생산단지를 육성,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올해는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보성군 경백면 일대 78ha에 친환경 재배 단지를 조성, 기능성 쌀인 '하이아미' 등을 재배했다. '하이아미'는 필수 아미노산이 보통 쌀보다 무려 31%가 많은 이른바

대표적 기능성 쌀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이다.

58농가가 참여, 유기농법과 무농약 등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했다.

생산된 쌀은 계약재배한 보성 북부농협이 전량 수매했다. 가격도 일반재배 농가보다 11~20%가 높다. 친환경 재배인 만큼 수량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농가 소득이 높은 데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는 장점이 있다.

북부농협은 수매한 쌀을 최근 소비자가 부쩍 늘고 있는 유기농 이유식과 유산균 발효 현미, 김장용 쌀가루 등으로 2차 가공 판매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일반 쌀과 비교해 최소 1.8배에서 2.7배까지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재배농가에 종자와 영농자재 보급, 친환경 재배에 따른 병해충 관리 등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는 다양한 소포장재 개발과 고급화로 부가가치를 더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가는 안정적 판로 확보에 소득도 늘리고, 농협은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상생 농업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다"며 "올해는 나주, 구례, 강진 등 3곳에 신규 단지를 조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편집기자 kroh@kwangju.co.kr

## 해남, 권역별 특화소득작목 확대

중부권 버섯주식회사

남부권 여주재배단지

해남군이 권역별 특화소득작목을 확대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나간다.

군은 6일 "현재 남부권과 서부권, 중부권 3개 권역별로 단지화, 규모화하고 있는 특화작목에 대해 올해 25억을 투입, 하우스와 덕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공정육묘장을 조성하는 등 농사소득 높이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특화작목 중에서 농업법인체를 육성, 버섯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무화과와 밤호박에 이어 버섯 주식회사가 출범하면 공동작업과 선별출하, 고유브랜드 제작을 본격화되면서 해남 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남부권에 아열대 채소인 여주재배단지를 새롭게 조성, 올해 1억 3000여만원을 투자한다. 여름철 농한기 소득작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밤호박의 경우 재배농가가 150곳까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품질의 밤호박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장 0.2㏊를 조성해 우량묘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인삼은 2㏊에 무인방제관수시스템을 도입하고 15㏊에 해가림시설을 지원한다. 현재 해남에서는 중부권에 밤호박, 딸기, 양파제종, 서부권에 세발나물, 남부권에 무화과와 부추 등 모두 355농가가 288㏊의 면적을 재배하며 연간 159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특화작목 중에서 농업법인체를 육성, 버섯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무화과와 밤호박에 이어 버섯 주식회사가 출범하면 공동작업과 선별출하, 고유브랜드 제작을 본격화되면서 해남 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매 조기발견 선별검사

진도지역 60세 이상 노인들이 6일 진도군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1차 선별검사를 받고 있다. 군은 2·3차 진단이나 감별 검사가 필요한 지역 노인에게 협력병원인 해남우리병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 방사성 물질 국내유입 꼼짝마!

목포항만청, 감시기 설치 운영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6일 "올해부터 방사성 물질의 국내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여 환경보호 및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항만 출입구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는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들에 대해 천연방사선 물질의 함유 여부를 체크해 방사선 오염 여부를 감시한다. 감지신호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통관내역을 조사하며 필요 시 화물의 이동 경로조차 등을 하게 된다.

감시기 운영을 위해 목포청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에 명시한 정부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항만감시기 운영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감시기 3기(대불부두 1개 신항 다목적부두 2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남광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일본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환경오염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만큼 항만을 통한 방사선 관련 물질의 유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광양시, 종묘 구입비 8300만원 과다 집행

## 진도군, 간판정비 입찰 2억6000만원 낭비

### 감사원 감사서 적발

광양시와 진도군이 더 싸게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들풀속 행정을 폭파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광양시의 화훼농가 종묘구입비 지원사업과 진도군의 간판정비사업 입찰 업무가 부당하게 진행돼 관련자 징계 요구와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진도군은 2012년 11월 사업비 2억6000여만원을 들여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간판정비사업 입찰을 하면서 대체품이 있음에도 간판프레임을 굳이 특정 특허제품으로 제한했다.

감사결과 진도군은 특히 업체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입찰과 사업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탈이 나자 대체품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오편집기자 kroh@kwangju.co.kr



구례-신세계조선호텔 업무 협약

### 농산물·산수려 샘물 홍보

군 관계자는 "업무협약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춧가루, 오이, 버섯 등의 농산물이 조선호텔에 납품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은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신세계조선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및 산수려 샘물의 공급·유통,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및 지역산 산수려 샘물이 서울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 공급되게 됐다.

/구례=이성구 lsg@kwangju.co.kr



## 중기 청년취업인턴제 기업 설명회

### 광양상의, 중기 임원 대상

상위 20%의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4년 연속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광양만권 중소기업에 약 20억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채용기업에 최장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최대 80만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취업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개월간 매월 65만원씩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광양상의는 지난해 347명을 취업시켜 전국 180여개 운영기관 가운데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예우리옷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62-21번지  
(금남로 5가역 기업은행옆 뚜레쥬르 끝쪽)  
T. 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국내개발 | 국내생산 특허 제 10-1171252호

NEW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제품 모델명 : S20, S22, ST33



소리큐 광주 호남지사  
제 이에스 메디칼 | 062)227-1700

※본 제품은 의료기기 아닙니다.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14-4  
전남대학교병원 건너편, 본관 2층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MEOON**  
www.soriq.co.kr

소리큐 홍보대사  
송해선상님